

고흥군 전기동력 항공 기술개발 선도

전기추진 시스템 구축 공모 선정 5년간 사업비 223억원 투입 무인항공 단지 성능평가센터 설립

고흥군이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인증체계 및 항공 인프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고흥군이 전남도와 함께 참여한 이번 공모사업은 주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과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223억원을 투입해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부지 내 성능평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흥군에는 평가-인증과 비행실증까지 가능한 원스톱 항공인프라 시설이 완비된다.** 세부 실행사업으로 ▲친환경 항공추진시스템 평가센터 및 장비 구축 ▲전기추진시스템 기술개발 및 국산화 지원 ▲핵심구성품별 시험평가법 개발 및 국제공인 인증체계 구축·운영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업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군은 항공추진시스템 평가기반이 구축되면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플랫폼(eVTOL)을 사용하는 미래항공모빌리티의 핵심부품들은 **고흥 평**

가센터에서 성능시험-평가를 받게 돼 지역 항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우수한 항공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K-UAM 그랜드챌린지 개발지 실증에 이어 2025년 도심항공교통체계 본격 상용화 서비스의 활성화가 지원되면, 미래비행체(AAV) 국내 개발 및 기체 인증 등 항공산업 육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흥군이 전기동력 미래 비행체 평가·인증 산업 전반에 대해 국내 주도권을 선점하게 됐다**"며 "이는 곧 지역 미래전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이어 인구가 유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 문척교가 철거된 자리에 새롭게 건립될 '섬진강 달빛교' 조감도. <구례군 제공>

구례군 '섬진강 달빛교' 설치 다음달 발주

구례군은 문척교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다음 달 중 발주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새 보도교 이름은 '섬진강 달빛교'이다. 이 보도교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차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이 460m, 폭 4.5m의 보도교 전용 교량으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2년여간 건립될 예정이다. 구례군은 공공디자인·경관 심의를 마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한 상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점용 허가를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옛 문척교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때 손해를 입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철거했다. 문척교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보도교를 설치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지난 2년 동안 구례군과 '문척교 보존을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단, 영산강청 등은 민·관 협의체를 꾸려 보도교 설계를 진행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밤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에 야간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섬박람회장 진입로 경관 개선...내년까지 10억원 투입

섬박람회 상징물 설치·가로 정비

여수시가 2026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해 진입로변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2025년까지 도비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들여 섬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도모퉁이의 진입도로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여수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의 '남도 경관 조성 사업' 공모에 신청돼 도비 3억원을 확보했다. '경관 개선 사업'은 섬박람회 상징성을 강화하는 상징 조형물 설치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경관성 향상을 위한 거점 쉼터 공간 조성, 보행자를 위한 수변 보행가로 정비 등 사업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역 특성과 섬박람회의 정체성에 맞도록 디자인 및 설계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 뒤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섬박람회장 진입도로로 경관 개선 사업 예시도. <여수시 제공>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이후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수변 가로경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차 음료 경연대회 '보성 티 마스터컵'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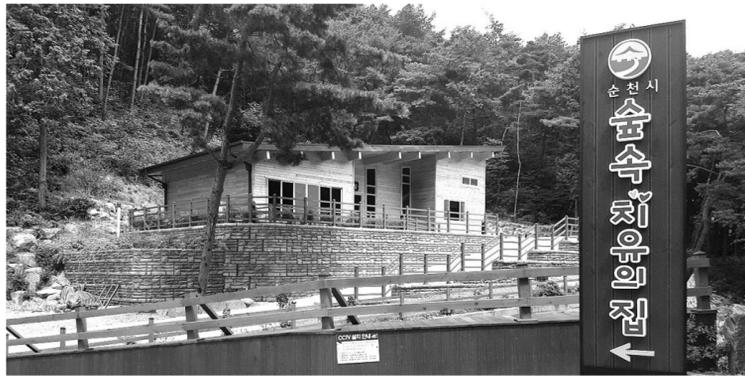
문체부장관상 이아영 씨 수상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맞이 연례 행사로 보성에서 개최된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보성 티 마스터컵은 전국의 식음 서비스 운영자와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보성 차(茶)의 비주얼, 맛과 향, 창의성, 시가지성, 활용성을 평가하는 대회다. 대회 당일에는 본선 진출자 6인의 차(茶) 음료 작품 1200잔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시음할 수 있게 해 차(茶)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의 맛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포도밭의 녹차송이'를 개발한 이아영씨가 차지했으며, 이씨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대상작은 보성 말차와 사인머스켓, 포도 등을 활용한 변주 차(베리레이션 티)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쉬운 제조법, 음료 외형 등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은 '신호등'을 선보인 김승수씨가, 금상(보성군수상)은 '호지(Hoji), 파인(Pine), 팽귤'을 선보인 이병연씨가 각각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차(茶) 음료 경연대회는 보성 차(茶)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차(茶)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보성다향대축제를 통해 우리 차(茶)의 멋과 맛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행사 이달부터...선착순 15명 모집

순천자연휴양림이 이달부터 산림 치유 행사를 진행한다. 산림 치유는 휴양림 이용자와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15명 안팎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된다. 산림 치유는 '숲속 체조'와 '솔방울 순환 마사지', '호흡 이완 명상', '건식 편백 족욕', '숲속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자연휴양림(061-749-8948)으로 문의하면 되고, 산림 치유는 전화 또는 현장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휴양림 이용객에게는 순천 자



이달부터 산림 치유를 진행하는 순천시 서면 운평리 순천자연휴양림. <순천시 제공>

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숲과 함께하는 체험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전남형 청년공동체 사업' 참가자 모집

5명 이상 팀...활동비 등 지원

광양시는 오는 6월14일까지 '2024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팀에게는 활동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18세~45세 청년으로 이뤄진 5인 이상의 청년공동체이다. 구성원의 60% 이상이 광양시에 거주해야 한다. 활동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청년 연구조사를 통한 활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역 내 청년들과 소통·교류 활동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공동체 대표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